

1988년부터 1998년까지 경찰병원에 입원한 전경환자의 암종류와 유병률

국립 경찰 병원 내과

안 민\*, 진종구, 차주영, 차영학, 이권진, 김윤권, 조민구, 김소연

최근들어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은 순환기계 질환에 이어 악성 신생물에 의한 사망율이 약 20%로 사망원인 중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1980년 초부터 각종 암의 기본자료를 얻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전국 규모의 실질적인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이후였다. 저자는 최근 약년 중에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암의 특징을 얻고자 1988년부터 1998년까지 본원에 입원하였던 20대 초반의 전경환자 중 조직학적으로 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들의 임상적 평가 및 생존기간 등을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1988년부터 1998까지 병리 조직학적으로 암으로 진단된 40명의 전경환자의 연령은 19세부터 24세였으며, 평균나이는 21.7세였다.
2. 88년부터 96년까지 본원의 모든 연령군의 암 환자에서 전경의 암 발생비는 본원에 내원하였던 전체 427명의 암 환자 중 33명으로 8%였다.
3. 1988년부터 1996년 8월까지, 추적검사가 가능하였던 전체 암 환자에서 2년 생존율은 29명의 환자 중 15명으로 51% 보였다.

장기별로 보면,

- 1) 갑상선, 위에 발생한 암 환자에서는 전부 2년 이상 생존하였다.
- 2) 백혈병 40%, 악성 임파종 75% 정도의 2년 생존율을 보였다.
- 3) 췌장, 부신, 간, 췌장, 소장, 대장의 암 환자에서는 2년 이상 생존한 환자를 관찰할 수 없었다.
4. 본원에서 조사한 20대 초반의 환자에서 백혈병과 악성 임파종, 부신, 췌장, 비뇨 생식기에 생기는 암은 95년 한국 암등록 조사 보고서의 소아 환자의 발생빈도와 비슷하였으며, 또한 위, 대장, 간 담도에 생기는 암은 점차 소아 환자의 발생 빈도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소세포폐암에서 VP-16, Ifosfamide, Cisplatin(VIP)과 Cyclophosphamide, Doxorubicin, Vincristine(CAV) 교대화학요법의 효과

정철원\*, 김재열, 박인원, 최병휘, 허성호, 이상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배경 : 소세포폐암의 치료는 복합화학요법이 근간을 이루며 제한병기의 경우 방사선요법이 국소제발을 감소시키고 생존율을 향상시킨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Ifosfamide는 소세포폐암에서 효과적인 제제로서 제 3상연구에서 VP 투여군에 비해 VIP 투여군에서 생존율이 향상된 것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doxorubicin은 단일제제로서 효과적이며 cisplatin을 포함한 화학요법제제와 교차내성이 없어서 CAV 복합화학요법은 소세포폐암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VIP와 CAV를 교대로 투여하여 그 반응율과 완전관해율, 무진행 생존기간 및 생존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 1991년 9월부터 1997년 9월까지 과거에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을 받지 않았으며 조직학적으로 소세포폐암으로 확진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VIP(VP-16 60mg/m<sup>2</sup> D1-5, Ifosfamide 1,000mg/m<sup>2</sup> D1-5, Cisplatin 20mg/m<sup>2</sup> D1-5)과 CAV(Cyclophosphamide 1,000mg/m<sup>2</sup> D1, Doxorubicin 40mg/m<sup>2</sup> D1, Vincristine 1.5mg/m<sup>2</sup> D1)을 매 3주마다 교대로 투여하였으며 제한병기인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관해에 도달한 후 흉부 및 전신방사선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 1. 제한병기의 환자는 15예(남자 12예)이었으며 중앙연령은 60세(범위: 48-68)이었고 WHO 활동도 0-1이 10예이었다. VIP/CAV 교대화학요법의 중앙투여회수는 3회이었으며 흉부 방사선조사를 받지 않은 환자는 6예이었다. 4예에서는 CAV유지화학요법을 6회씩 시행하였다. 15예중 완전관해는 7예, 부분관해 4예, 진행 4예로 완전관해율은 47%이었으며 그중 4예는 조직검사로 관해를 확진하였다. 중앙추적기간 21개월에 전체생존기간의 중앙치는 17개월이었으며 무진행 생존기간의 중앙치는 6.5개월이었다. 관해에 도달한 11예중 9예에서 재발되었는데 국소제발이 3예, 뇌전이가 3예이었다. 총 85회의 복합항암화학요법중 3/4도의 백혈구 감소증이 12회(14%), 혈소판감소증이 4회(5%), 빈혈은 2회(2%)에서 나타났다. 비혈액학적 부작용으로는 대부분 경미한 오심과 구토, 설사를 보였으나 심한 식욕감소가 1예에서 관찰되었고 1예에서 운동실조를 보이는 신경독성이 발생하여 치료를 중단하였다.

2. 확장병기의 환자는 5예이었으며 중앙연령은 58세이었다. VIP/CAV 교대화학요법의 중앙투여회수는 4회이었고 고식적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는 2예 있었다. 5예중 완전관해는 2예, 부분관해가 3예이었다. 중앙추적기간 14개월에 전체생존기간의 중앙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며 무진행생존기간의 중앙치는 5개월이었다. 혈액학적 독성이 주독성으로서 3/4도의 백혈구감소증이 13%, 혈소판감소증이 5%, 빈혈이 8%에서 관찰되었다.

결론 : 이상의 결과로 소세포폐암에서 VIP/CAV 교대화학요법은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방사선치료의 병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